

- 주요 뉴스: 바우먼 연준 이사, 물가 수준을 고려해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필요
 - ECB 빌루아 위원, 물가안정을 위해 9월 최종금리 도달 이후, 내년까지 유지
 - 주요 투자은행, 연준의 최종금리 전망치 상향 조정
 -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 물가압력 통제를 위해 긴축강도 강화 필요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통화긴축 강화 우려로 투자심리 위축

주가 하락[-0.3%], 달러화 보합[+0.0%], 금리 하락[-5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연준의 긴축강도 지속 우려에 따라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도 위험선호 저하로 0.2%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인사들의 발언이 엇갈리며 보합 마감
유로화가치는 0.2% 절상, 엔화는 0.2% 절하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휴를 앞두고 숏커버링 매수 유입 등으로 하락
독일은 빌루아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의 통화정책 발언 영향 등으로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294.4원, +6.7원) 0.5% 상승, 한국 CDS 상승

		2/17일	2/16일	전일대비			2/17일	2/16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079.1	4,090.4	-0.28%	국채 금리 10y	미국	3.81%	3.86%	-5bp
	유럽	464.30	465.24	-0.20%		독일	2.44%	2.48%	-4bp
	중국	3,224.0	3,249.0	-0.77%		영국	3.52%	3.50%	2bp
	일본	27,513	27,696	-0.66%	CDS 5y	한국	43bp	41bp	2bp
	한국	2,451.2	2,475.5	-0.98%		중국	65bp	62bp	3bp
환율	달러지수	103.87	103.86	0.01%	위험 지표	EMBI+	-	382	-
	유로화	1.0695	1.0674	0.20%		VIX	20.02	20.17	-0.74%
	엔화	134.15	133.94	-0.16%		WTI유	78.39	78.49	-0.13%
	위안화	6.8686	6.8575	-0.16%	원자재	구리	413.0	413.6	-0.13%
	원화	1.2037	1.1993	0.37%		금	1,842.4	1,836.4	0.3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바우먼 연준 이사, 물가 수준을 고려해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필요

-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나 높은 상태라고 진단하며, 하락 압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야한다고 주장
- 중앙은행이 긴축행보를 멈추려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야 하며, 아직까지 금리인상이 경제를 둔화시키고 있다는 증거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 물가오름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책금리 인상이 필요
- 반면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2월 FOMC에서 25bp 인상을 지지했다고 발언하면서 앞으로도 동일한 폭의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
- 데이터를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정책금리를 25bp 인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 즉, 터미널레이트로 신속하게 인상한 이후 정책금리를 멈추는 것 보다, 데이터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평가
- 앞으로 미국의 물가 수준을 중앙은행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고, 인상폭은 지켜봐야할 것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ECB 빌루아 위원,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9월 최종금리 도달 이후, 내년까지 유지 필요

-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50bp 인상 단행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현재 초점은 최종금리 도달 이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는 것
-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려면 오래동안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리며, 현재 정책금리 수준(예치금 금리 2.5%)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나, 3월 회의 이후 4번의 정책회의를 통해 정점(3%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슈나벨 ECB 정책이사는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 통제범위에 두기 위해서는 긴축강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강도를 낮출 경우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과소평가 할 수 있다고 주장

■ 주요 투자은행, 연준의 최종금리 전망치 상향 조정

- 골드만삭스는 고용지표가 견조하고 소비자물가도 반등함에 따라 연준이 예상보다 긴축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 기존에는 3월, 5월 회의에서 25bp씩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6월에도 25bp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을 조정하면서 최종금리 전망치도 5.25%~5.50%으로 상승 조정
- BoA도 최근 물가지표의 상승세를 반영하여 연간 PCE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0%로 0.3pt 조정하면서 6월 25bp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전망. 최종금리 전망치도 골드만삭스와 동일한 5.25%~5.50%으로 인상

■ 미국 컨퍼런스보드 1월 경기선행지수, 전월비 0.3% 하락하며 10개월 연속 하락

-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지표중 제조업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제조업 신규주문지수의 경우 가장 부정적으로 작용. 한편, 경기동행지수는 전월비 0.2% 상승

■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 물가압력 통제를 위해 긴축강도 강화 필요

- 최근 물가지표들을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확산되는 조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연준의 통화정책이 제한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주장. 소비자물가의 경우 하부구성 지표들의 최근 흐름을 보면 연율 7%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
- 금융시장은 금년중 금리인상이 중단될 것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최근 물가지표들은 이러한 전망에 의구심을 증폭. 또한 미국 기업들이 재고를 축적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저축을 모두 소진해 나가는 상황을 지적하며, 미국 경제가 멈춰설 수 있다고 경고

■ 중국 정부,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해외상장을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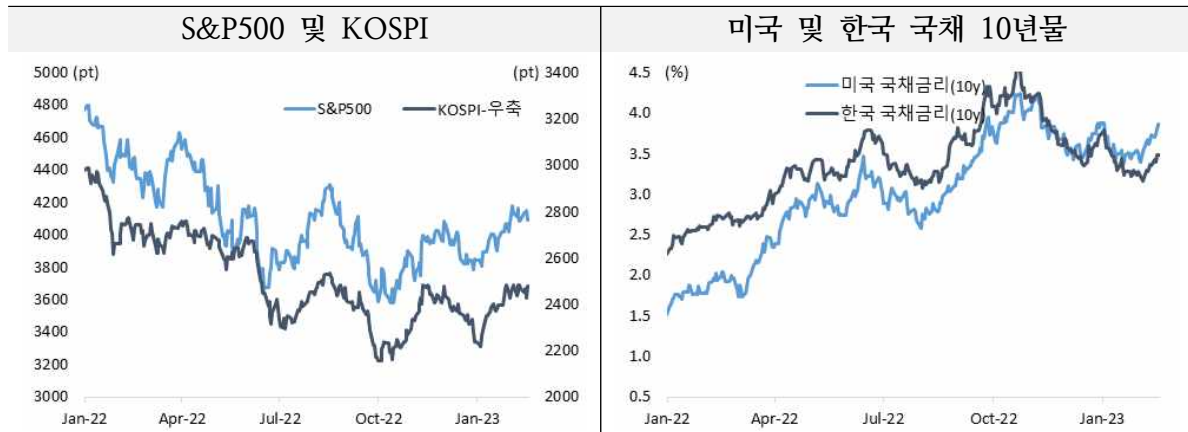
-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본토 기업이 해외상장을 할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종류를 불문하고 금지하기로 결정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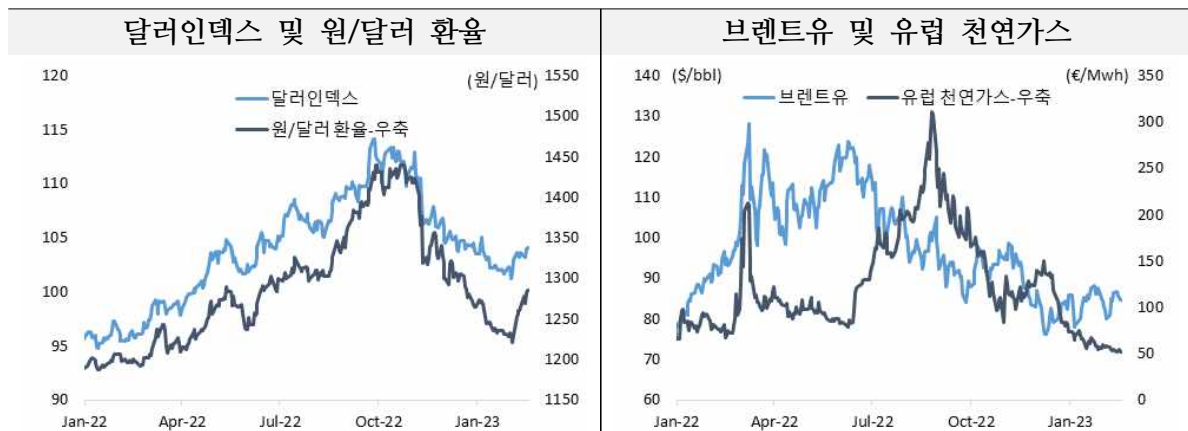
■ 주요 경제 이벤트(2/20 현지시각 기준)

- 인민은행 LPR 결정, 튀르키예 2월 소비자신뢰지수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053, E-mail jchwang@kcif.or.kr